

## 건군 60년 : 한국군의 과제

洪 聖 杓\*

1. 머 리 말
2. 건군 60년
3. 향후 60년 : 한국군의 과제
4. 맺 음 말

### 1. 머 리 말

올해는 대한민국 국군이 창설된 지 어언 60주년이 되는 해이다. 한국군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창설되었다. 창군 2년만에 동족상잔의 전쟁을 치루었고 이를 기회로 한국군은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되었다. 한국전이 발발한 1950년 6월 남북한의 군사력은 북한이 남한에 비해 두 배가 넘는 심각한 불균형 상태였다.<sup>1)</sup>

\* 국방대학교 교수

1) 남한의 병력은 10만 6천 명인데 반해 북한은 그 두 배에 해당하는 20만 명이었다. 항공기는 남한이 22대, 북한은 220대, 장갑차와 전차는 남한이 27대, 북한이 296대, 포 약 3,000문, 북한은 약 3,000문이였다.

국군창설에 따라 조선경비대와 조선해안경비대가 국군에 편입되었으며 9월 5일 각각 육군과 해군으로 개칭되었다. 해병대는 해군에서 편입된 300여 명의 인원으로 해군기지 경비를 목적으로 창설되었다. 공군은 1948년 5월 창설된 육군항공부대가 모체가 되었고 1949년 10월 1일 정식으로 대한민국공군으로 창설되었다.

한편, 1945년 12월에 설립된 군사영어학교는 약 200명에 이르는 졸업생을 배출하였는데 이들은 한국군 창설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 창군의 주역들이 되었다. 이들 중 110여 명은 소위로 임관하여 창군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으며 5·16 쿠데타 이후 박정희 정부의 실권세력을 형성하였다.

이처럼 한국군은 창군기의 어수선한 시기를 채 지내기도 전에 한국전을 치루게 되었고 한국전 후 군은 1961년 5·16 군사혁명과 1979년 12·12 사태의 주역으로 군사정권 창출의 주도세력이 되기도 하였다. 군부출신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로 극명하게 양분되어 있다. 이는 군이 그동안 국민들에게 끼친 영향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실상이라 할 수 있다.

한국군의 공과(功過)에 관한 다양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장년으로 성장한 한국군은 이제 병력, 무기장비, 전투작전역량, 국방예산 규모 등 여러 면에서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막강한 군사력으로 성장했다. 영국의 권위있는 전문지 '군사력 균형(The Military Balance 2007-2008)'에 의하면 한국군은 연간 예산규모 10위, 병력규모 5위, 무기장비 규모 면에서 세계 10위권 안에 들 정도로 성장하였다.<sup>2)</sup> 창군 60돌을 맞이한 한국군에 관하여 향후 60년을 기획하는 입장에서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요구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국가와 군을 위해 매우 뜻 깊은 일이라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1945년부터 1950년까지의 건군기, 1950~1961년의 한국전과

2) IISS, *The Military Balance 2007-2008, 2007*; SIPRI *Yearbook 2006*,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pp. 335-342; 국방부, 『2008년도 국방예산』, 2008, p. 111.

전후 정비기, 1961~1971년의 국방체제 정립기, 1972~1980년의 자주국방 기반조성기, 1981~1990의 자주국방강화기, 그리고 1991~2008년의 국방태세발전기로 구분하여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고 향후 60년을 향한 발전과제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 2. 건군 60년

### (1) 부대 창설기

한국군의 창설은 해방과 더불어 시작된 정부수립의 일부로 추진되었다. 육군의 첫 제대인 제1사단은 1947년 12월 1일 서울 남산동에서 조선경비대 제1여단으로 창설되었다. 예하에는 태릉에 위치한 제1연대, 청주의 제7연대, 춘천의 제8연대가 근간을 이루었다. 그 해 12월 28일에 현재 국방대학교 위치인 수색으로 이동하였고, 이듬해 5월 1일 제1사단으로 승격되었다.

제2사단은 1947년 12월 대전에서 조선경비대 제2여단으로 창설되었다. 1949년 5월 제2사단으로 승격되었다. 제3사단은 부산에서 조선경비대 제3여단으로 창설되었으며 1949년 5월 대구에서 사단으로 승격되었다. 제5사단은 1948년 4월 수색동에서 조선경비대 제5여단으로 창설되었으며 1949년 제5사단으로 승격되었다. 제6사단은 최초로 청주에서 제4여단으로 출발하였고 1948년 12월 제6여단으로 개칭되었으며 이듬해 5월 사단으로 승격되었다. 제7사단은 조선경비대 제1연대를 모체로 하여 1949년 6월 용산에서 제7사단으로 승격되었다. 제8사단은 1948년 5월 제10연대를 모체로 하여 1949년 6월 강릉에서 창설되었고 1964년 8월 포천으로 이동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해군은 1948년 9월 5일에 창설되었다. 이미 해방과 함께 9월 30일 손원

일을 중심으로 해사협회가 조직되었고 그 해 11월 1일 200명의 인원으로 해안경비대를 조직하고 진해에 사령부를 설치하였다.<sup>3)</sup>

해병대의 전신인 해방병단은 그 해 11월 11일 해사협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창설되었다. 총 70명으로 창설된 해방병단은 창설식 후 곧바로 진해로 내려가 임무에 임했다. 하지만 해방병단은 창설 직후 정식 군사조직으로 인정받지 못해 급료도 지급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이듬해 1월 14일 국정법령 42호에 의해 국방사령부 예하로 편입되었으며 5월에서야 급료와 보급품을 지급하게 되었다.

공군은 1948년 5월 5일 수색에 육군항공부대를 설립한 것이 모체가 되었다. 그 해 8월 15일 정부가 수립되면서 사령관이었던 최용덕 대위가 국방차관으로 전속되었고 후임에 이영무 대위가 임명되었다.<sup>4)</sup> 항공부대는 김포와 여의도에 기지를 확보하였고 9월 13일 L-4 연락기 10대를 미군으로부터 김포기지로 인수하였다. 1949년 1월에는 항공사관학교를 설립하였고 2월에는 여자항공대도 창설하였다. 1949년 10월 1일 드디어 정식으로 대한민국 공군이 창설되었다.

### (2) 한국전과 국군

#### 1) 지상군작전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시작된 한국전쟁에서 북한은 불과 3일만에 서울을 점령하고 한 달 만에 낙동강방어선 이북의 전역을 장악하게 되었다. 한미연합군은 후퇴를 계속하면서 미 본토로부터의 증원군 전개를 위한 지연작전을 지속하였다. 지면관계상 낙동강방어선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유엔군의 전개를 위한 부산교두보 확보는 절대절명의 과제였다. 미 제8

3) 국방저널 제415호(2008. 7), p. 32.

4) 국방저널 제415호(2008. 7), p. 33.

군사령관 월톤 워커(Walton H. Walker) 중장은 부산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 낙동강을 따라 방어선을 설정하고 이를 사수하고자 전력투구하였다. 낙동강방어선은 남북으로 150km, 동서로 90km에 걸쳐 형성되어 총 240km에 이르렀다. 이중 한국군이 128km, 미군이 112km를 담당하였다.<sup>5)</sup>

낙동강방어선의 중동부 및 동부 방어선은 한국군이 담당하였고, 중부 및 서부방면의 드넓은 평야지대는 미군이 맡아 북한군과 치열한 격전을 벌였다. 북한군은 김일성의 충주 지령에 따라 8월까지 부산 함락을 목표로 대구와 마산에서 북한군 13개 사단 병력 중 11개 사단을 투입하여 총공세를 몰아붙였다. 하지만 한·미연합전력은 성공적인 공·지·해 합동작전으로 북한군의 8월 대공세를 차단 격퇴시켰다. 북한군은 한달간 전열을 재정비한 뒤 9월에 다시 13개 사단을 전부 투입하여 총공세를 감행하였다. 북한군은 전병력을 5개 집단군으로 나누어 대구, 영천, 경주, 창녕, 마산에서 동시다발적인 총공세를 펼쳤다. 하지만 한·미연합전력은 이미 8월 대공세를 물리쳤던 경험을 바탕으로 긴밀한 공지합동작전으로 북한군의 총공세를 격퇴시키는데 성공하였고 곧 이어 인천상륙작전 성공으로 북한군을 패퇴시켰다.

왜관-다부동-팔공산으로 이어지는 중서부지역 방어는 국군 제1사단과 미해병 제1기병사단이 담당하여 치열한 전투를 전개하였다. 이 두 사단은 8월 공세 때에는 성공적으로 방어하였지만 9월 공세 때에는 다부동 지역을 적에게 내주게 되었다. 창녕과 영산으로 이어지는 서부 및 남부전선에서는 미 제24사단과 미 제25사단, 미 제1해병여단이 맡아 적과 일진일퇴의 공방전을 치루며 방어에 성공하였다. 미 제25사단은 마산과 함안지역을 중심으로 진주까지 진격하며 북한군의 공세를 차단 격퇴시켰다.

신녕과 영천으로 이어지는 중동부전선에서는 일진일퇴의 공방전을 거듭하다가 적의 공세에 밀려 영천이 적에게 점령되어 미군이 사용하던 영일비행장이 적의 위협에 놓이게 되자 한·미연합전력은 물자와 장비 및 병력을

급박하게 부산으로 철수시켰다. 하지만 미군의 증원과 기민한 연합방어작전으로 영천을 재탈환함으로써 북한군을 격퇴시켰다.

동해안 및 기계-안강, 포항-영덕으로 이어지는 동부지역작전에서는 산악지대를 타고 남하한 북한군 제5사단과 제12사단을 맞아 국군 제3사단과 수도사단이 대응하여 형산강방어선을 형성하고 적의 진군을 차단, 격퇴하였다. 한·미연합전력이 낙동강방어선을 사수하는 사이 미국은 미 제2사단과 미 제1해병여단, 하와이의 제5연대전투단이 한국으로 전개하였으며 미 본토의 6개 전차대대가 한국에 투입되어 낙동강방어작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이 기간 중에 홍콩에 주둔 중이던 영국의 제27여단이 증원되어 전열정비에 큰 도움이 되었고 한·미연합작전 체제에서 유엔군 체제로 전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유엔군은 낙동강방어작전 초기의 열세를 극복하고 점차 병력, 장비, 무기 등에서 북한군을 능가하게 되었다. 곧 이어 전개된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으로 전세도 반격작전으로 전환되었다.

## 2) 해군작전

한국전 당시 유엔해군의 전력 배치를 살펴보면 전력이 허약했던 한국해군은 주로 서해 연안지역에 배치되었고 그 외해에는 영국 및 캐나다 해군이 배치되었으며 해안선이 곧고 수심이 깊어 함포지원을 할 수 있는 동해안 지역에는 8인치포를 장착한 미해군의 대형 순양함이 주로 배치되었다. 북한해군은 초기 활동이 활발했으나 점차 유엔해군이 증강됨에 따라 수세에 몰리게 되었고 유엔해군은 적의 후방을 압박하는 전략을 구사하였다.

낙동강방어진 기간 동안 서남해안에서는 전쟁물자를 수송하던 북한함정을 공격하여 적병 약 200명과 선박 50여 척을 격침시키는 전과를 올렸다. 북한군이 통영지역을 점령하자 한국해군과 해병대는 최초로 통영에 상륙작전을 감행하여 적을 퇴각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를 계기

5)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5 낙동강선 방어작전』, 2008, p. 3.

로 후퇴만을 거듭하던 국군들의 인식에 전쟁승리의 신념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인천상륙작전에 대비하여 해군과 해병은 인근의 덕적도, 영흥도를 사전에 점령하여 상륙작전의 전략적 거점을 마련하였다.

낙동강방어작전이 한창이던 8월 5일부터 9월 3일 기간 동안 미국의 항공모함 4척이 부산항 인근에 진입하여 2,481쏘티의 근접항공지원작전을 실시하였다. 이 같은 근접항공작전으로 적의 병력과 전차, 차량, 그리고 군수물자 및 기지를 무차별 폭격하여 적의 사기를 꺾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또한 기간 중 동해안에서 고립되었던 제3사단 전력을 LST 함정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철수시키는 전과도 올렸다. 이는 해군이 우세한 해군력을 바탕으로 일구어낸 매우 귀중한 전과였다.

### 3) 공군작전

1950년 6월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한국공군은 전선의 후퇴에 따라 수원, 대전을 거쳐 대구기지로 후퇴하였고 김해와 진해기지를 확보하였다. 북한공군은 IL-10 전폭기와 YAK-9 등의 전투기를 동원해 남한을 공격하였다. IL-10 전폭기는 6월에 44회, 7월에 46회를 출격하였으나, 미 극동공군이 한반도에서 제공권을 장악한 8월 이후에는 총 8회 출격한 것으로 집계되었다.<sup>6)</sup> YAK-9 전투기는 전쟁 초기부터 8월까지 총 222회 출격하였으며, 그 이후의 비행활동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었다.

한국공군은 8월 1일부터 미 제5공군의 전초부대였던 제6146기지부대의 지원을 받아 비행훈련과 정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낙동강방어선 사수를 위해 악전고투하는 유엔군을 지원하기 위해 출격작전을 감행하였다. 한국공군은 주로 낙동강 남부 방어선을 공격해오는 적과 경부선을 따라 남하하는 적을 공격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특히 통영상륙작전을 지원하여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이 기간 중 F-51 무스탕전투기는 총 93회를 출격

6)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5 낙동강선 방어작전』, 2008, p. 705.

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고 T-6기는 무스탕의 지상공격작전을 유도하였다.<sup>7)</sup> 또한 정찰비행대의 T-6, L-4/5기는 적의 정황을 정찰하고 연락임무를 수행하며 지상군작전을 지원하였다.

당시 유엔공군은 북한의 군수산업시설에 대한 전략폭격과 보급수송로 등을 차단하는 작전을 수행하였고 아 지상군을 지원하는 근접항공지원작전을 통하여 적의 전투력을 무력화시키고 아 지상군의 작전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특히 8월 16일 유엔공군은 왜관지역에 B-29 98대를 투입하여 적의 제대들에 대해 용단폭격함으로써 심각한 타격을 가하였다. 이후에 적들은 주로 야간에만 소극적인 작전을 수행하게 되었고, 유엔공군의 야간출격이 강화되면서 점차 수세에 몰리게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8월 초 김일성이 수안보 총사령부에서 내린 8월 15일까지 부산을 완전히 점령한다는 목표를 포기하게 되었다.

맥아더 사령관은 9월 15일을 인천상륙작전 D-Day로 확정하고 8월 30일 작전명령 제1호를 발령하였다. 이 작전의 목표는 월미도 일대를 장악하고 있는 적을 격파하고 인천항에 상륙하여 김포비행장을 장악하고 서울을 탈환한다는 구상이었다. 이 계획에 따라 유엔공군은 상륙작전 지원을 위한 후방차단작전을 강화하고 북한지역 전략표적에 대한 공격을 지속하였으며 상륙작전을 위한 물자공수와 전투공수단을 투입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C-119 수송기를 확보하고 9월 10일에는 전투공수사령부를 창설하여 임무수행을 위한 조직편성을 강화하였다. 9월 15일 역사적인 인천상륙작전은 대성공이었고 이를 기점으로 낙동강 방어전선도 반격작전으로 전환하여 총공세를 감행하게 되었다.

한국공군의 작전을 살펴보면 대구기지를 미 제5공군 전초부대에 인계하고 한국공군은 미 제6146부대와 함께 진해기지로 이동하였다. 미국으로부터 F-51 무스탕전투기 10대를 인수하여 비행훈련에 임했다. 진해기지 활주로가 비행훈련하기에 부적합한 상태여서 비행훈련은 인근의 김해기지를 이

7)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5 낙동강선 방어작전』, 2008, pp. 666-674.

용하였다. 미 제6146부대 부대장 딘 헤스(Dean E. Hess) 소령을 비롯한 비행교관들은 한국공군 조종사들의 비행전술과 통신 및 수신호체계, 그리고 공중전 수행을 위한 비행전술들을 가르쳤다. 특히 헤스 소령은 8월 14일 제25사단의 항공지원요청이 쇄도하자 마산 방면으로 단독 출격하여 적 30여 명을 살상하는 전과를 올렸으며, 그 날 이후에도 하루 평균 6회 정도의 출격을 지속적으로 감행하였다.

한국조종사들은 2주간의 비행훈련을 마치고 전선에 투입되는 상황이었다. 8월 15~17일간 한국공군은 하동, 광양, 함양, 순천, 통영, 장성 등 적 제6사단, 제7사단의 후방지원기지를 집중 공격하였고 차량, 야포진지 등을 파괴하고 70여 명의 적을 살상하는 전과를 올렸다. 적은 통영과 거제도를 점령하여 부산과 진해, 마산으로의 해상 보급로를 압박하고자 하였다. 이에 통영과 고성 쪽으로 야포를 앞세워 남하하는 적을 제압하고자 8월 17일 아해병대의 통영상륙작전이 전개되었다. 공군은 T-6기를 주력으로 통영상륙작전을 지원하였으며, 20일 가장 치열한 격전지였던 원문고개 전투를 지원하여 적을 패퇴시켰다. 이 작전에서 적병 400여 명을 사살하고 야포 10문과 차량 5대 등을 파괴하는 전과를 올렸다.<sup>8)</sup>

한편 F-51 전투비행부대는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영동, 옥천, 김천, 상주 등에 출격하여 적의 전차, 차량, 건물 등을 대량 파괴하는 전과를 올렸다. 8월 20일 이후 적의 낙동강방어선 돌파를 위한 총공세가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공군은 적의 후방차단작전 임무에서도 많은 전과를 올려, 9월 2일 이후에는 의성, 함창, 상주 등의 적을 공격하였고 4일 이후에는 무주, 대전, 논산, 공주, 청주, 온양, 김천 등지의 적을 공격하였다.

한반도 전국에서의 제공권이 장악되자 극동공군은 B-29 중폭격기들을 출격시켜 북한군을 압박하였다. 8월 4일 김포비행장을 공격하여 북한공군기들을 파괴시켰고 8월 5일에는 평양비행장을 폭격하였다. 이어서 지속적인 후방차단작전을 통하여 북한군의 후속제대들을 무력화하였으며, 39도선 이

8)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5 낙동강선 방어작전』, 2008, p. 672.

남의 적 항공전력들을 소탕하는 작전을 지속 수행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군은 창설된 지 채 2년도 못된 시점에서 한국전쟁을 치루게 되었다. 군의 조직과 편성이 채 완성되기도 전에 전쟁부터 치루게 된 국군은 미군과의 긴밀한 연합작전으로 북한군을 격퇴시키고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였다.

### (3) 전후 국방력 체제정비기

#### 1) 전후복구 정비

한국전 후 한국군은 전면적인 재정비에 들어갔다. 빈한했던 무기장비를 집중 보강하면서 군 조직구조를 강화하는데 주력하였다. 3년 1개월간 지속된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국군 60만 명, 유엔군 55만 명을 포함 총 115만 명이 전사, 부상, 실종당한 반면 북측은 북한군 80만 명, 중공군 123만 명 등 약 200여 만 명이 희생되었다. 뿐만 아니라 피난 이재민 370만 명, 전쟁고아 10만 명이 발생하였다.

전쟁이 끝난 1953년 7월 28일 국방부직제를 대폭 개편하여 제1국 육군, 제2국 해군, 제3국 공군, 제4국 병무국, 제5국 관리국으로 편제하고 임시합동참모회의와 임시합동참모본부를 설치하였다. 1954년에는 연합참모본부를 설치하였고 조병창과 국방부과학연구소도 설치하였다.

휴전 이후 국군은 1953년 11월 말까지 2개 전투사단을 추가로 창설한 것을 비롯, 지속적인 부대 확충에 진력하여 1954년에는 총 72만 명의 병력을 확보하였다. 이는 전쟁 전에 비해 7배 이상 증가된 병력규모로서 1957년까지 유지되었다. 하지만 이는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 되었고 미국으로서도 군원에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미측에서 먼저 감군안을 제시하였다. 1958년 한·미의정서 수정으로 육군병력 9만 명을 감축하기로 합의하고 육군 93,460명, 해병대 1,500명을 감축하고 해군은 1,600명, 공군은 3,360명을

증원하였다.<sup>9)</sup>

1958년 8월 공군은 제2비행단인 제11전투비행단을 창설하여 전력을 크게 강화하였다. 육군은 1960년 1월에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후방지역 방어임무와 군수지원임무를 수행하던 2관구사령부를 해체하고 대신 군수사령부를 창설하여 박정희 소장을 사령관에 임명하였다.

한편, 전쟁이 종료된 직후 남한에는 제대로 보존된 공공기관 하나 남아 있지 않았다. 이에 군은 대대적인 공공시설 복구사업에 착수하여 학교, 고아원, 진료소 등을 복구 및 증설하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군의 문맹퇴치운동도 적극 추진하여 건군부터 1959년까지 약 52만 명의 장병들에게 문맹퇴치교육을 실시하였다.

## 2) 국방력 체제정비기

1960년 5월 16일 박정희 소장은 군사혁명으로 정권을 장악하였다. 1963년 10월 15일 선거에서 박정희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1963년부터 한·일 간에 국교정상화를 위한 협의가 진행되었고 일본의 보상지원 규모가 3억 불로 알려지면서 대일 굴욕외교에 반대하는 데모가 전국적으로 거세게 일어났고 이를 기화로 1964년 5월 최두선 내각은 출범 6개월 만에 퇴진하고 정일권 내각이 들어서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병력을 투입하여 사태를 진정시켰다.

1964년 미국과 베트남정부의 요청으로 한국군은 베트남전에 파병되었다. 1966년부터 북한 무장공비의 침투가 증가되더니 1967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10배가 증가되었고 1968년 1월 21일에는 북한 특수부대 요원들에 의한 청와대 기습사건이 발생했으며 23일에는 동해에서 푸에블로호 피랍사건이 일어났으며 1969년 4월 15일에는 미 정찰기 EC-121기가 동해에서 격추되는 등 심각한 안보위기가 조성되었다. 이를 계기로 한·미 간에는 국방장관회

담을 연례화하기로 합의하고 한국군 현대화를 위해 특별군사원조비 1억불을 지원하기로 합의하였다.

기간 중 국방부 내국을 총무과, 군무국, 정훈국, 병무국, 군수국, 관리국과 연합참모국의 6국 1과 체제로 개편하였다. 1963년 5월 국군조직법이 전문 개정됨에 따라 연합참모국과 연합참모회의는 폐지되고 대신 합동참모회의와 합동참모본부를 설치하였다. 1971년 국방부장관 밑에 정책기획관을 신설하여 국방정책을 총괄, 관장하도록 하였다.

1963년 5월 국군조직법 전문개정에 따라 합동참모본부 직제가 공포되었다. 합동참모본부는 본부장과 그 밑에 인사기획국, 전략정보국, 작전기획국, 군수기획국 및 행정실을 두었다. 1966년 베트남파병을 지원하기 위해 행정실을 비서실로 개편하고 합동상황실을 신설하였다. 1968년 무장공비 출현이 증가됨에 따라 대간첩대책본부가 신설되었고 합동참모본부장이 간사가 되었다.

5·16 군사혁명 후 군에 관한 법령 및 제도가 일제 정비되었다. 육·해·공군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직제가 개편되었고 군형법, 군법회의법, 군행형법, 군인사법, 군속인사법, 국군조직법, 군인복제령, 군인연금법, 군인보수법, 군인복무규율 등이 개정되었으며, 대학생 군사훈련제도도 정비하였다.

1962년 4월 고딘 디엠 베트남대통령은 베트남전에 한국군 파병을 요청해왔다. 2년여의 검토 끝에 한국은 파병을 결정하고, 1964년 9월 11일 의무 및 태권도 부대가 우리 해군의 LST편으로 부산항을 출항하여 22일 사이공 인근 봉타우에 전개하였다. 1964년 2~4월의 통킹만사건을 비롯하여 11월의 비행장폭격기 폭파사건, 12월 장교숙소 폭파사건 등 베트남의 도발이 격화되자 미국은 적극 공세로 전환하면서 한국군의 추가파병을 요청하였다. 1965년 8월 13일 국회는 베트남증파안을 가결시켰고 10월 12일 여의도에서 파병환송식이 거대하게 거행되었다. 4차에 걸쳐 베트남에 파병된 한국군은 총 312,853명이었다. 한국군 피해는 사망 4,960명, 부상 10,962명, 실종 6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월맹군 및 베트남 41,401명 사살, 포로 4,633

9) 국방군사연구소, 『건군 50년사』, 1998, p. 162.

명, 귀순 2,482명, 개인화기 19,270정, 공용화기 1,651문을 포획하는 전과를 올렸다.<sup>10)</sup>

한편, 북한 게릴라들에 의한 청와대 기습 사건 이후 계속된 무장공비의 출현에 대비하고 향토방위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968년 2월에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이 공포되었고, 총 1,646,026명으로 예비군조직을 완성하고 4월 1일 창설하였다.

1969년 7월 닉슨 대통령은 꺾에서 “국가방위의 1차적인 책임은 자국이 스스로 담당해야 한다”는 닉슨독트린을 선언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은 해외 주둔 미군을 대폭 감축하였는데 주한미군도 1971년 여름까지 2만 명을 감축하기로 하였다. 그 대신 미국은 한국군 현대화사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고 팬텀 전폭기 1개 비행단을 한국에 주둔시키기로 합의하였고 야간정찰기 공급 등 한국군 현대화를 위한 추가 군원제공을 다짐하였다. 1971년 2월 6일 한국군 현대화를 위한 양국 간 합의에 따라 1972 회계년도에 추가 군원 1억 5천만 달러, M16소총 공장 건설자금 2,700만 달러, 잉여장비 1억 달러 등 15억 달러의 특별군원을 제공하는 공동성명서가 발표되었다. 그 대신 미국은 제7사단을 본국으로 철수시켰다. 이로써 주한미군은 43,000명으로 감축되었으며 18년 만에 판문점을 제외한 휴전선에서 후방으로 철수하였고 대신 한국군이 휴전선 방어를 전담하게 되었다.

### 3) 자주국방 기반조성기(1972~1980)

박정희 정부는 1972년 12월 27일 정권연장을 위한 유신헌법을 제정, 공포하였다. 미국은 1975년 4월 30일 베트남전에서 패배하였으며, 이에 자국 받은 한국정부는 학도호국단을 창설하고 일반대학생의 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 또한 1975년 7월 16일 방위세법을 신설하여 가중되는 국방비 압박을 해소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민방위기본법을 제정하여 지역의 안정과 재난

구조 임무를 기본으로 하는 민방위대도 창설하였다. 1976년 8월 18일 판문점에서 주한미군 아더 보니파스(Arthur G. Bonifas) 대위가 미루나무 절단작업을 감독하던 중 북한군의 도끼에 맞아 숨지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한편 1977년 새로 취임한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은 향후 4~5년에 걸쳐 주한미군을 완전 철수하겠다고 공약하였고 1978년에 6,000명을 감축하는 대신 한국군의 현대화를 위해 그들이 사용하던 8,000~9,000만 달러어치의 무기장비를 한국군에게 이양하도록 결의하였다. 하지만 미의회의 반대로 3,400명만 감축하고 나머지는 1979년에 철수시키기로 하였다. 1978년 7월 27일 미국은 8억 달러어치의 장비를 한국에 이양하는 법안과 2억 7천5백만 달러의 대한 군사판매차관, 9천만 달러의 대한 탄약비축자금, 2백만 달러어치의 한국군 군사훈련비 등이 포함된 국제안보지원법안을 통과시켰다. 7사단의 철수에 따라 한미연합사령부가 창설되었다.

기간 중 박대통령은 자주국방의 기치를 내걸고 독자적 방위계획 수립, 방위산업 육성 등을 포함한 울곡사업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1973년 7월 1일부로 제3군사령부를 창설하고 9월 1일부로 해병대사령부를 해군에 통합시켰다. 수도권 영공방위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974년 5월 제15전투비행단을 창설하였고 1976년 8월 제16전투비행단을 창설하였다. 1977년 6월에는 제18전투비행전대를 비행단으로 승격시켰고, 1978년 9월 제17전투비행단을 창설하였다. 1979년 8월에는 제8전투비행단을 창설함으로써 자주국방력 건설의 토대를 강화하였다.

### 4) 자주국방력 강화기(1981~1990)

기간 중 한국군은 중장기 기획능력을 집중 보강하였다. 국방기획 분야에 기획관리제도를 도입하여 군사력건설을 체계적으로 연계성 있게 지속 추진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하였다.

미국은 제7사단 철수의 선행조건으로 15.96억 달러를 지원하여 한국군 현대화를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9.88억 달러만 지원하는 바람에 한국군 현

10) 국방군사연구소, 『건군 50년사』, 1998, p. 221.

대화 사업은 차질을 빚게 되었다. 1973년 북한은 GNP의 23.2%인 13.9억 달러를 국방비로 지출하였는데 반해 한국은 GNP의 3.3%인 6억 달러 정도를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었다.

국방투자재원의 증대를 절실히 필요로 했던 한국은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전력증강사업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정부는 1982~1986년 기간 중에 제2차 울곡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총 5조 3,867억원을 투입하여 F-5전투기 도입, 한국형 구축함 건조, 야포 및 한국형 전차와 장갑차 개발에 주력하였다. 공군은 기간 중 미군이 사용하던 F-4 팬텀기와 정찰기를 도입하여 실전배치하였고 C-130 대형수송기를 도입하여 공중수송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 또한 88서울올림픽 대비 일환으로 F-16을 도입하였고 AIM-7, AIM-9과 같은 공대공 유도무기도 대폭 보강하였다.

군구조 개혁을 위해서는 1988년 7월부터 '8·18 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3단계에 걸쳐 연구한 '장기 국방태세 연구안'을 작성하였다. '장기 국방태세 개혁안'은 통합군체제로의 전환을 골자로 하였는데 이는 1990년 국회에 상정되면서 야당의 반대로 결국엔 합동군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그리하여 1990년 10월 1일부로 합동참모본부가 창설되었고, 합참의장은 개정된 국군조직법에 따라 육군 제1, 제2, 제3군 사령부 및 해·공군 작전사령부 등 10개 독립작전부대와 정보사령부 등 3개의 직할 합동부대를 작전 지휘 및 감독하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

기간 중 특기할만한 사실은 육군과 공군본부가 40여 년간의 서울 시대를 마감하고 계룡대로 이전하였다는 점이다. 1983년부터 추진돼온 계룡대 이전은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수도 서울인구의 번잡함을 해소하고 군정에 전념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었다.

5) 국방태세발전기(1991~현재)

1990년대 들어 세계정세는 동유럽 공산정권들이 연이어 붕괴되고 독일이 통일되었으며 범세계적으로 탈냉전 분위기가 고조되었던 시기이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영국 등 선진국들은 냉전기의 방만했던 군사력을 소수 정예화하면서 첨단과학무기장비 중심의 첨단군으로 전환시키는데 주력하였다. 한국군도 이 같은 세계적 추세에 부응하고자 '8·18 연구위원회'에 이은 '21세기 국방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방개혁 청사진을 만들고 이를 출판하여 범국가적으로 추진하고자 노력하였지만 거센 개혁저항에 부딪쳐 실질적으로는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sup>11)</sup>

반면에 전력증강계획은 지속 추진되어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0년대 중후반에는 전차, 장갑차, 자주포를 양산하게 되었으며, 헬기, 잠수함 등을 증강하였고, F-16 전투기의 기술도입 생산이 실현되어 한국군의 작전 역량을 한 차원 격상시켰다.

기간 중 특기사항으로 한미연합군의 평시 작전통제권이 1994년 12월 1일부로 한국군에게 이양되었다. 그동안 한국군은 작전역량이나 지휘능력면에서 미약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이 작전통제권 전환으로 한국군의 능력이 이제는 신뢰할만한 수준으로 격상된 것으로 한·미간에 합의된 것이다.

<표 1> 주요 방위력 개선 추진 현황

구 분	1차 울곡 (1974~1981)	2차 울곡 (1982~1986)	3차 울곡 (1987~1996)
투자비 (국방비 대비)	3조 1,402억 원 (31.2%)	5조 3,280억 원 (30.5%)	26조 105억 원 (32.0%)
추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후장비 교체</li> <li>전방지역 진지구축</li> <li>고속정 건조</li> <li>항공기(F-4) 구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주포, 한국형 전차, 장갑차 개발</li> <li>주요 전투함정 건조</li> <li>F-5 전투기 기술도입 생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차, 장갑차, 자주포 양산</li> <li>헬기, 잠수함, F-16 전투기 기술도입 생산</li> </ul>

자료 : 국방부, 『국방백서 1996-97』, 1996, p. 89.

11) 국방부, 『21세기를 지향하는 한국의 국방』, 1995.



1990년대 한국군에 나타난 큰 변화 중 하나는 군무 전반에 걸친 국방정보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걸프전과 코소보전에서 보여준 전장가시화의 성과는 전쟁양상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이 같은 전쟁양상의 변화에 부응하고자 한국군은 국방정보화에 박차를 가하여 첨단 C4I체계 구축에 진력하였다. 그동안 각 분야별로 각각 구축되어 있던 정보체계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시키는 작업과 함께 새로운 업무프로세스들을 정보화하는 작업들이 추진되어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신속한 지휘통제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첨단정보전 수행체제를 강화하였다.

6) 한국군의 국제평화유지작전(PKO)

1991년 국제연합에 남북한이 동시에 가입한 후 한국은 유엔이 주관하는 국제평화유지작전(PKO)에도 참여하게 되었다. 1993년 7월 한국군 최초로 소말리아에 군건설을 위한 공병대대를 파견하였고 이듬해 3월 철수시켰다. 기간 중 공병대대는 연인원 2,700명과 장비 1,360대를 투입하여 발라드-조하르 간 주도로 복차선 공사를 완공하였고 발라드-아프고이 간 우회도로는 미군과 공동으로 4개월 만에 완공하였다. 또한 '제너럴 다우드' 관개수로도 완공하였다. 이 외에도 서부사하라 선거지원단 활동에 참여하였고 앙골라에 공병부대를 파견하여 평화유지작전을 수행하였다. 1993부터 현재까지 한국군의 국제평화유지작전 참여 현황은 <표 2>와 같다.

종합해보면 한국군은 건군 직후 한국전쟁을 통하여 공산주의자들의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방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해냈다. 전후에 한국군은 국가의 재건과 발전을 위한 대열에 앞장서서 기여하였다. 1980년대 이후 선진형 국방력 건설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수차례에 걸친 개혁노력은 번번히 개혁저항에 부딪쳐 좌절되고 말았다.

물론 첨단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첨단무장화는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한국군은 그동안 추진해온 전력증강사업에 힘입어 세계 10위권의 막강한 전력으로 성장하였다. 공군은 이미 최첨단 전투기인 F-15K와 KF-16을 확보

<표 2> 유엔평화유지활동 참여 현황(1993~2006)

지역	부대규모	기간	교대주기	연인원
소말리아	공병대대(252명)	1993. 7~'94. 3	6개월	504명
앙골라	공병대대(198명) 사령부참모(6명)	1995.10~'96.12 1996. 2~'97. 2	6개월 1년	594명 6명
서부사하라	의료지원단(20명)	1994. 9~	6개월	188명
인도, 파키스탄	군 업저버(10명)	1994.11~	1년	23명
그루지아	군 업저버(5명)	1994.10~	1년	17명
동티모르	지역재건, 치안확보 보병 대대 규모	1999.10~'03.10	6개월	3,328명
사이프러스	사령관(1명)	2002. 1~'03.12	2년	1명
라이베리아	군 업저버(2명)	2003.11	1년	4명
브룬디	군 업저버(2명)	2004. 9	1년	2명
수단지원단	군 업저버(정전감시)	2005.11	1년	8명
동티모르	평화건설 지원	2006. 7	-	561명
시에라리온	평화건설 지원	2006. 7	-	56명

자료 : 국방군사연구소, 『건군 50년사』, 1998, p. 473; 국방부, 『국방백서』, 2004, pp. 109-112에서 재구성.

하였고 2011년을 목표로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해군은 이지스함 세종대왕함을 지난해 1월 진수함으로써 세계 5번째 이지스함 보유국이 되었고, 2012년까지 2척을 더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아시아 최대의 상륙지원함인 독도함도 실전배치하였는데 이는 헬기나 수직이착륙기 20여 대를 탑재할 수 있고 상륙작전 시에는 헬기 7대, 전차 6대, 장갑차 7대 등 장비와 병력 700명을 운송할 수 있는 아시아 최대의 거함이다.

건군 60주년을 맞이하여 국방과학연구소는 10대 명품무기를 선정, 발표하였는데 K-9 자주포, K21 전투장갑차, K2 전차, K-11 복합형 소총, KT-1 기본훈련기, 휴대용 대공무기 신궁, 신형 경어뢰 청상어, 함대함유도무기

해성, 지대지유도탄 현무, 군위성통신체계 URC-700K가 그것이다. 이들은 미래 전장에서 경쟁력 있는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첨단 무기장비들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군은 어엿한 장년의 군대로 성장하였으며, 세계적으로도 높은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다.

### 3. 향후 60년 : 한국군의 과제

미래전에 대비한 한국군의 과제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먼저 21세기 전쟁 양상과 전장환경의 특성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본장에서는 1991년 걸프전 이후에 발생한 전쟁의 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전쟁양상 변화와 전장환경의 특성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 (1) 21세기 전쟁 양상

##### 1) 첨단 정보전

정보전이란 적의 정보능력을 마비시켜 전체적인 전쟁수행체계를 와해시킴으로써 적이 전쟁목표를 상실하고 오합지졸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다. 반면에 아측은 고도의 정밀유도무기를 운용하여 적의 중심을 정확하게 타격함으로써 적을 전략적으로 마비시킨다.

현대에는 지구항법장치(GPS)가 발달하여 적의 이동표적이라 할지라도 정확한 표적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인공위성을 비롯한 우주자산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표적에 대한 위치정보를 타격수단과 지휘부에 분초단위로 지속해서 제공한다. 최근에는 CBU같은 확산탄에도 GPS 유도장치를 장착하여 지정된 좌표 반경 1km 이내를 초토화시킨다. <표 3>은 항공우주전과 정보전의 주요 개념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표 3> 항공우주전과 정보전의 비교

항공우주전의 임무	정보전의 임무
제공, 제우주	제정보
전략 공격	국가정보망의 파괴 및 와해
차 단	C4I의 연결점을 표적화
근접항공지원	전자교란
공 수	전구(戰區)로 정보 전송
공중 급유	비행 중 자료 갱신
전자전	바이러스 칩투로 자료 손상
감시 및 정찰	적 정보체계의 파악

자료 : 홍성표역, 제프리 바넬, 『미래전』(서울: 연경, 2000), p. 14.

##### 2) 병행전(Parallel Warfare)

병행전이란 다수의 표적을 거의 동시에 공격하여 무력화시키는 개념을 의미한다. 걸프전 때만 해도 F-117은 2천 파운드짜리 정밀유도폭탄 2발을 장착하고 2개의 표적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었다. 하지만 B-1과 B-2가 작전배치되면서 2천 파운드짜리 유도폭탄 16발을 장착하고 임무에 투입되어 16개의 주요 표적들을 거의 동시에 효과적으로 공격하는 수준으로까지 정밀타격능력이 향상되었다.

##### 3) 네트워크중심전<sup>12)</sup>

1991년 걸프전 당시 미군은 제대간 첨단 지휘통신망은 물론 정찰위성, AWACS, JSTARS 등과 같은 천리안으로 이라크군을 한눈에 보면서 '급소'만 골라 원거리에서 정확히 명중시켜 확실하게 파괴하였다. 반면에 이라크

12) David S. Albert eds., *Network Centric Warfare: Developing and Leveraging Information Superiority*(Washington, D.C.: DoD C4ISR Cooperative Research Program, 1999), pp. 87-114.

군은 100만 명이 넘는 대규모 병력집약형 군대였지만 다국적군의 일방적인 공격으로 케멸되었다. 현대전에서 병력규모가 큰 의미 없음을 보여준 전쟁이었다.

21세기 군대는 제대간 네트워크는 물론, 한 제대 내에서도 지휘부와 일선 전사들 간에, 또한 무기체계들 간에, 그리고 센서와 타격수단들 간에 모두가 첨단 정보기술에 기반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전장의 모든 요원들이 동시에 같은 정보를 공유하며 동일 목표를 향하여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4) 원거리 정밀교전

미래전 양상은 적을 원거리에서 정밀유도무기로 공격하는 양상이 보편화 될 것이다. 막대한 인명손실이 불가피한 근접전투는 피아 모두 피하게 될 것이다. 합동직격탄(Joint Direct Attack Munition: JDAM)은 사거리 5~15마일, 원형공산오차 3미터의 GPS/INS 겸용 정밀유도무기들이다. 보통사람의 가시거리가 7마일 내외임을 감안하면 가시거리 밖에서 공격당하는 셈이다.

5) 효과기반작전(Effects-Based Operations : EBO)

효과기반작전은 1980년대 후반부터 미공군에서 개념을 발전시켜 2002년에 '효과기반작전 백서'를 발간하였다. 효과기반작전은 적의 전투력을 완전히 파괴하고 나서 전쟁승리를 쟁취하였던 과거의 재래식 전쟁개념을 벗어나 적의 전투력이 여전히 생존해 있어도 그것이 실제로 작동하지 못하면 전투력이 상실된 것으로 간주하는 개념이다. 즉 적의 항공기들이 비행장에 그대로 있어도 활주로가 파괴되거나 연료보급이 끊겨서 항공기가 출격하지 못하면 그것은 무력화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는 첨단 감시정찰능력과 정밀유도무기의 결합으로 가능해졌는데, 걸프전 시 한 대의 항공기와 한 발의 정밀유도무기는, 제2차 세계대전 중 1천

대의 항공기와 9천 파운드의 폭탄으로 달성했던 것과 동일한 효과를 창출한 경우들도 있었으며, 작전시 우군의 피해는 거의 없었다. 세르비아 내전에서는 항공작전 시 정밀유도무기 사용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는데, 16,500개의 폭탄 중에서 거의 7,000개가 정밀유도무기였으며, 반면 이것들을 운반한 항공기의 쏘티수는 감소되었다.<sup>13)</sup>

미국의 전략가 필립 메일링거는 집중의 의미가 과거 대규모 병력과 물자의 집중에서 이제는 효과의 집중으로 그 개념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고 강조하였다.<sup>14)</sup> 고도의 정밀유도무기로 원하는 표적을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정확하게 공격하여 무력화시킴으로써 목표를 달성한다. 과거처럼 대규모 병력과 물자를 동원할 필요가 없다.

6) 신속결전(Rapid Decisive Operations : RDO)

<표 4> 재래식 작전과 신속결전개념의 차이

재래식 작전	신속결전
순차적, 점진적(Sequential, Progressive)	동시적, 병행적(Simultaneous, Parallel)
전개, 숙영, 증원, 계획 후 이동	이해, 투입, 타격, 지속, 계획하며 이동
선형적(Linear)	분산적(Distributed)
파괴에 기반(Attrition-based)	효과에 기반(Effects-based)
수적 우세, 적 군사력 공격	질적 우세, 적 능력 공격
대칭적(Symmetrical)	비대칭적(Asymmetrical)
지형 중심(Terrain-oriented)	시간 중심(Time-definite orientation)
군사력 중심(Force-oriented)	결합력 중심(Coherence-oriented)

자료 : Chris Shepherd, *Campaign Plan 2001 Status Briefing*, Joint Forces Command, 2000.

13) *Air War over Serbia Fact Sheet*, 31 January 2000, p. 6.

14) Phillip Meilinger, *10 Propositions regarding Air Power*, US Air Force History and Museums(1995).

2003년 이라크전쟁에서는 개전 초기부터 항공전역과 지상전역을 병행하는 신속결전(迅速決戰) 개념을 적용하였다. 신속결전 개념과 재래식 작전개념의 차이는 대략 <표 4>와 같다.

## (2) 21세기 전장환경의 특성

### 1) 전장가시화 달성

1990년대 들어 첨단 IT산업의 발달에 따라 전장가시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졌다. 특히 지휘통제통신컴퓨터(C4)와 정보감시정찰(ISR) 체계의 체계연동을 달성함으로써 군사지휘부는 지휘소 안에서 전장상황을 실시간에 전자스크린에 시현하여 전장상황을 직접 바라보면서 전쟁을 지휘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 2) 전장공간의 확대

21세기 전장환경의 특성 중 하나는 전장가시화와 첨단 무기체계 성능의 향상을 바탕으로 단위제대들의 전투공간이 현저하게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1950년대 한국전쟁 당시 1개 사단의 전투공간은 20×20km였다. 1990년대에는 100×100km 정도였으며 2010년대에는 120×200km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sup>15)</sup> 입체적 전장공간도 지·해·공의 3차원 공간에서 이체는 우주와 사이버공간이 추가된 5차원 공간으로 확대되었다.

### 3) 충격과 공포(Shock & Awe)

‘충격과 공포’는 1991년 걸프전 당시 합동군공군구성군사령관을 역임한 찰스 호너(Charles Horner) 장군이 전후에 국제안보전략연구소(CSIS)의

15) 권태영, 『21세기에 대비하는 한국의 군사혁신 비전과 방책』, 2003, p. 98.

할란 울만(Harlan Ullman)과 제임스 웨이드(James Wade) 등과 함께 연구하여 발표한 새로운 개념으로써 하늘로부터 거부할 수 없는 위력으로 엄습해오는 불벼락과 같은 공포스럽고 충격적인 공습상황을 의미한다.<sup>16)</sup> 공중전에서 패배하게 되면 적의 공습에 밀려 전세가 수세에 몰리게 되고 결국 전쟁에서 패배하게 된다.

### 4) 정밀폭격과 은밀침투를 가능하게 한 스텔스기술

베트남전에서 운용된 공격편대군은 공중급유를 제외하고, 목표지역을 공격하는 16대의 폭격기들을 포함하여 총 62대의 전투폭격기들로 공격편대군을 구성해야만 했다. 하지만 1983년 F-117 스텔스전폭기가 개발됨으로써 이 같은 대규모 공격편대군은 불필요하게 되었다.<sup>17)</sup>

스텔스와 정밀능력의 결합은 많은 수의 표적을 효과적으로 공격하는데 소요되는 항공기와 지원인력 및 기반시설들의 규모를 크게 절감시켰다. 걸프전 당시 전투기 총 580대 중 F-117 스텔스기는 5%에 해당하는 30대에 불과하였지만 첫 24시간 표적목록의 44%를 파괴하였다. 걸프전 전기간을 통하여 F-117 스텔스기는 전체 전투비행소트의 약 2%에 불과하였지만 전체 표적리스트상 표적의 43%를 공격하였다.<sup>18)</sup>

16) 이 연구팀에는 CSIS의 Harlan Ullman을 비롯한 여러 전문가들이 참여하였는데 1996년에 연구보고서 'Shock & Awe'를 출판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적을 막강한 군사력으로 압도하는 것이 아니라 적의 다양한 표적들을 일련의 폭격으로 파괴시켜 적의 사기를 제압하고 승리한다는 것이다. Harlan Ullman은 미국방대학교에서 이 연구내용을 강의하였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Harlan Ullman & James P. Wade, *Shock & Awe: Achieving Rapid Dominance*(DU Press, 1996).

17) Richard P. Hallion, *Storm over Iraq, Airpower and the Gulf War*(Washington D.C.: Smithsonian Institution Press, 1992), pp. 293-294.

18) *GWAPS*, pp. 334-335.

(3) 21세기 한국군의 과제

1) 현대전 수행개념 정립

한국군이 이제까지 발전시켜온 전쟁수행개념은 <표 5>와 같다. 1997년 처음으로 육·해·공군이 공유할 수 있는 군사기본교리를 만들고자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각군 간의 이해관계에 밀려 그 결과는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다. 그 후 수차례의 보완작업을 거쳐 많은 진전을 이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군사기본교리는 여전히 합동성을 제고시키는 데 부족한 점이 많다.

현대전은 합동전이다. 육·해·공군 전력을 전장상황에 부합토록 상호 유기적으로 조화롭게 운용하여 적을 효과적으로 공략하여 승리를 쟁취하는 전쟁이다. 하지만 걸프전 기획가 데이비드 텡틀라 장군이 강조했던 것처럼 합동성이 그렇다고 해서 육·해·공군 전력을 항상 균등하게 투입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주어진 전장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전력을 투입하여 승리를 가져오도록 운용하는 것이다.

앞에서 간단히 살펴본 바와 같이 앞으로의 전쟁은 하늘에서 시작되고 하늘에서 승패가 결정된다. 현대전은 항공우주력으로 먼저 공중 및 우주우세를 장악한 뒤, 적 중심을 파괴, 무력화시키고 적의 저항능력을 원하는 수준 이하로 저하시킨 뒤, 아 지·해상군이 출동하여 전장을 수습하고 전쟁을 승리로 종식하는 양상으로 수행된다. 지상군은 구축된 진지를 중심으로 적의 진출을 차단, 거부하며 현 전선을 고수하다가 아 항공우주력이 적의 저항능력을 원하는 수준 이하로 저하시키고 나면, 진격을 시작하여 전의를 상실한 적을 접수하고 전장을 점령, 통제하는 양상이다. 이는 적 지상군과의 근접전투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인명희생을 줄일 수 있다. 1991 걸프전 이후에 일어난 전쟁들은 모두 이러한 양상으로 수행되었다.

<표 5> 한국군의 전쟁수행개념 비교

구 분	전쟁수행개념	특 징
군사기본 교리 (p.54)	전쟁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적 침략을 거부하고 작전 성과를 확대하기 위하여 공중 및 해양우세를 조기에 확보하고 적의 전략무기를 조기에 무력화시킨다. 또한 합동 및 연합전력을 결정적으로 운용하여 적의 작전역량을 격파함으로써 목표를 조기에 달성한다.	공중해양우세 전략 무기 무력화 적 능력 격파 군사목표달성
합동작전 교리 (p.85)	정보우세를 유지하고 적 기습을 방지하며 공중 및 해상우세를 조기에 달성하고 대량살상무기, 장거리 타격수단 등을 우선 제압하고 적의 주요 비행장 및 항만시설의 사용을 우선적으로 거부한다. 적의 전략 예비제대를 조기에 식별하고 적의 주타격방향을 판단하여 노력을 집중함으로써 적의 공세를 약화시키고 결정적 작전을 위한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는데 주력한다.	각군의 능력과 특성 발휘 극대화. 합동성 제고로 시너지효과 창출
지상군 기본교리	공격: 점적작전, 급속작전, 협조된 공격, 전과확대, 추격 방어: 지역방어, 기동방어, 지연: 축차진지상 지연, 교대진지상 지연, 혼용지연 후방: 시설방호, 병참선방호, 도심지역방호, 대유격 작전	총력방위체제로 모든 가용자산을 통합하여 공세적으로 운용
지상전 개념서 (p.35)	적 중심 및 핵심표적의 무력화로 유리한 작전여건을 조성하여 전장주도권을 장악하고 결정적 기동으로 적을 격멸하며 안정화작전 등 다양한 유형의 임무수행으로 합동작전의 완전한 승리를 주도적으로 달성	네트워크 기반 동시 통합전
해군기본 교리	해군은 기동강습, 봉쇄, 상륙, 특수작전, 해상항공, 지휘통제, 기만, 잠수함, 항만방어, 후방지역작전과 대잠전, 전자전, 대공전, 화생방전, 대수상전, 기뢰전, 선박통제 및 보호, 기동군수지원작전을 통하여 해양통제권 확보, 전력투사를 통하여 전쟁 승리	18개 성분작전을 복합적으로 구사하여 전쟁승리
공군기본 교리 (pp.64-66)	공군은 제공, 전략목표공격, 항공차단, 근접항공지원, 전자전, 감시 및 정찰, 공수, 공중급유, 탐색구조, 대비정규전, 기지방어, 화생방방어, 방호 및 복구작전을 복합적으로 운용하여 전쟁에서 승리	항공력으로 적 전략 중심을 강타하여 전략적 마비로 전쟁승리

현대전 수행개념을 작성함에 있어서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은 육·해·공 3군의 전력이 각각 그 고유의 특성, 운용방법 및 활동영역을 달리하기 때문에 각군의 독자영역을 존중하면서 그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한다. 즉 공군은 그 첨단 항공우주력을 바탕으로 한 전쟁승리의 주도적, 결정적인 전력으로서 적의 공습을 차단, 격퇴하고 적 중심을 타격, 마비시키며 적의 야전 전투력을 격멸시켜 적의 전쟁수행체계를 마비시키고 전의를 말살시키는 임무를 주로 수행한다. 지상군은 전쟁을 종결짓는 궁극적인 전력으로서 전선을 구축하고 주요 거점을 방어하며 항공우주력에 의해 궤멸된 적과 적지를 접수하고 통제하는 임무를 주로 수행한다. 해군은 적의 전투력 운용을 전략적으로 견제하고 해양을 통제함으로써 우군에게 유리한 작전환경을 조성하며 전략적 능력을 발휘하여 적의 심장부를 강타하는 임무를 주로 수행한다. 현대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3군 전력의 강약점을 고려하여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전쟁수행개념을 제시해야 한다.

2) 군사력 건설 방향

21세기 전장은 하늘에서의 전쟁, 지상전, 해양전으로 구분된다. 하늘에서의 전쟁은 지상전이나 해양전에 비해 치명적이며 결정적이다. 항공우주전에서 주도권을 장악하면 지상전이나 해양전은 자동적으로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항공우주전에서 공중우세를 확보하면 항공우주력을 활용하여 아 지·해상군들의 작전을 엄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항공우주전에서 열세로 전락되면 버나드 몽고메리 원수가 지적했던 대로 적의 공습으로 인하여 지·해상전역이 위태로워지고 결국 수세로 전락되어 얼마 버티지 못하고 패배하게 된다.

한반도의 경우 우리가 막강한 지상전력을 바탕으로 전선을 철통같이 지킨다고 해도 하늘의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면 지상에서의 철통같은 방어는 큰 의미가 없다. 1991년 걸프전은 이 같은 사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따라

서 우리는 군사력 건설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 항공우주전에서 공중우세를 유지할 수 있는 전력체계의 구축, 그것이 바로 21세기 전쟁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전략이다. 지난 30~40년간 미국을 비롯한 군사선진국들이 추구해온 군사력 건설 방향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실례로 미 국방부 총괄평가국(Office of Net Assessment)에서 40여 년간 국방혁신을 이끌어온 앤드류 마샬(Andrew Marshall)은 미국의 주요 국방정책 전환기 때마다 결정적인 정책들을 제시하여 실행하였다. 예를 들면 1970년대 첨단전투기 중심의 군사력 건설, 1980~90년대 전략폭격기 중심의 전력증강과 90년대 후반 무인기와 지휘통제통신컴퓨터 및 정보감시정찰(C4ISR)에 의한 전장가시화 및 센서-슈터체계 연동구축 등 주로 혁신적인 기술발달을 토대로 새로운 전략개념과 군조직구조를 혁신하여 전투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 국방개혁의 모토였던 군사혁신(Revolution of Military Affairs: RMA)과 국방혁신(Defense Transformation) 캠페인 모두 앤드류 마샬이 선도한 국방발전 캠페인들이었다.<sup>19)</sup>

이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한국군의 대비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집약형 군구조로의 전환이다. 그동안 한국군은 경상비 부담이 과중하여 첨단전력체계 구축이 크게 제한받았다. 예를 들면 자주국방의 가장 초석이 되는 전략정보능력을 확충하기 위한 E-X 사업이나 감시권 영역에서의 전력투사를 가능하게 해주는 공중급유기 도입 사업, 그리고 아

19) 앤드류 마샬은 1949년부터 랜드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던 중 1973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에 의해 국방장관 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되어 미국의 냉전기 증강일변도 국방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제로베이스(Zero Base)에서 국방의 기본틀을 저비용고효율 체제로 재설계하여 국방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기반으로 하는 국방정책을 정착시킨 장본인이다. 그 후 앤드류 마샬은 85세인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국방장관 특별보좌역인 총괄평가국장으로서 재임명되면서 미국의 국방혁신을 막후에서 이끌어왔다. 앤드류 마샬에 관한 공개자료는 그의 업무성격상 매우 제한되어 있다. <http://www.inthesetimes.com/issue/25/09/vest2509.html> & [http://www.wired.com/wired/archive/11.02/marshall\\_pr.html](http://www.wired.com/wired/archive/11.02/marshall_pr.html) (검색일: 2007. 2. 1).

전략적 중심방호를 위한 SAM-X 사업 등은 15년 이상 전부터 그 중요성이 강조되었지만 매년 예산배정의 우선순위에서 밀려 실행되지 못하였다. 하지만 이들 사업보다 우선하여 추진된 사업들 중 많은 것들은 근접전투용 무기체계들이었다.

둘째는 21세기 전장환경에 적합한 원거리 정밀타격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현대의 첨단 무기장비들은 통상 가시거리(Beyond visual range: BVR) 밖에서 표적들을 공격하여 무력화시킨다. 한국군 전력체계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근접전투용 무기체계를 원거리 정밀타격전 무기체계로 전환시켜야 한다.

셋째는 한국군을 소수정예화하는 것이다. 연간 27조 원을 상회하는 한국의 국방예산은 결코 적은 것이 아니다. 그 많은 예산으로도 운영유지가 힘들 정도로 우리군은 몸집이 크다. 미래전 전문가들의 지적처럼 우리는 보다 강력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체제로 군을 소수정예화해야 한다.<sup>20)</sup> 전세계의 분쟁지역을 커버하고 있는 미국 육군의 총병력은 50만 명 규모이다.<sup>21)</sup> 러시아 육군도 40만 명이 안된다. 한국의 지상군 규모는 그보다도 많다. 북한의 군사력이 대규모 병력중심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상군 편중전력구조가 불가피하다는 논리도 이제는 설득력이 없다. 병력수로 싸우던 시대는 지났기 때문이다.

넷째는 3군 균형발전을 이룩해야 한다. 이는 단지 무기체계 획득의 균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국방 전분야에 대한 3군 균형발전을 의미한다. 국방 교리전략개념의 균형, 국방정책결정구조의 균형, 전략제대 작전지휘체계의 균형, 합참을 비롯한 합동군부대의 조직편성 균형, 군사외교 분야의 균형, 연구개발 및 방산체계의 균형, 국방예산 배분의 균형 등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균형적 발전을 의미한다.

다섯째는 한국군의 정신전력 강화이다. 한국군은 무엇보다도 어떠한 여

건 속에서도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는 필승의 신념을 견지해야 한다. 지난 40여 년간 80조 원 이상을 투자하면서 전력증강을 추진해온 한국군이 30여 년 이상 기아에 허덕여온 북한의 군사력에 비해 아직도 전력열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면 도대체 그 전력증강이 어떻게 추진되었기에 그렇다는 말인가. 전략상 우리의 강약점을 노출시키지 않으려는 전략적 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납득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설득력을 갖추어야 한다. 정치적 논쟁 여부에 관계없이 장병들은 필승의 정신전력으로 사기충찬한 군을 유지해야 한다.

여섯째는 국방 전분야에 대한 순수평가를 해야 할 시점이다. 미국은 냉전이 최고조에 달했던 1970년대 초 닉슨 대통령이 국내외적인 재정압박에 정부가 꼼짝달짝 못하게 된 상황을 깨닫고는 랜드연구소의 앤드류 마샬에게 미국이 처한 위협과 국방의 기본틀을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순수평가하도록 특명을 내렸다. 앤드류 마샬은 대통령의 특명을 받아 3년 동안 미국의 안보 전분야에 대하여 심층 분석한 결과 위협이 까닭없이 과대평가되어 있고 국방소요 또한 과도하게 부풀려져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국방장관과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였다. 미국은 앤드류 마샬의 순수평가를 기초로 미국이 직면한 안보위협과 국방소요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하여 국방의 기본틀을 바꿔놓았다. 이제는 한국도 위협 및 국방 전분야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순수평가를 실시하여 국방의 기본틀을 다시 잡아야 할 때이다. 앞에서 열거한 대안들을 포함한 새로운 미래 안보도전에 대비할 수 있는 전력구조로 전환시켜야 한다.

### 3) 분야별 군사력 건설 중점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논의와 관련하여 많은 전문가들은 한국군이 전략적 조기경보가 가능한 정보감시정찰능력과 전략타격능력, 그리고 실시간 작전지휘통제체계의 구축을 선결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다목적위성, 공중조기경보통제기, 군위성통신체계, 공중급유기,

20) 국방부, 『한국적 군사혁신의 비전과 방책』, 2003, pp. 211-215.

21) IISS, *The Military Balance 2004-2005* (2004).

이지스함, F-15K급 전투기 등이다.<sup>22)</sup>

가. 지휘통제통신 전력

실시간 지휘통제를 위한 지휘통제통신 전력은 첫째 이미 구축한 전략제대 지휘소자동화체계의 확장과 성능개량을 추진하고, 합동작전의 동시성과 통합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를 발전시키고, 전술제대의 전투수행 및 결심지원을 위한 전술 C4I체계를 구축하여 실시간 통합전투력 발휘를 보장토록 한다.

나. 항공우주전력

항공우주전력은 먼저 전략적 감시정찰을 위해 서울중심 반경 2,000km까지의 영역에 대한 감시정찰이 가능한 다목적 실용위성체계와 적지중심에 대한 영상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전략정찰기 및 고고도 정찰용 무인기 등 전략적 감시정찰수단을 확보하고, 작전제대별로 요구되는 전술적 전장감시수단을 단계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또한 한반도 작전영역에서 공중우세를 확보할 수 있는 첨단전투기전력과 적의 중심에 위치한 전략중심을 타격할 수 있는 원거리 정밀타격능력을 구비한 첨단 전투폭격기를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원거리 전력투사를 위한 공중급유기 및 지원기 전력을 확보해야 한다.

나아가 다양한 공중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중·고고도 방공능력을 강화하고 저고도와 국지방공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다. 지상군전력

지상군전력은 공세기동 전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첫째, 질적 군대로의 전환을 위해 병력을 기존의 2/3 규모로 단계적으로 감축하면서 기동성, 치명성, 생존성을 향상시킨다.<sup>23)</sup> 둘째, 실시간 대화력전 수행 및 중심

22) 박영민, '전략권 환수해도 국방비 증액 없다,' 『국방일보』, 2006. 8. 30, p. 1.

23) 이 같은 병력 감축의 근거로는 다음과 같은 작품들을 들 수 있다. 국방부, 『국방개혁 2020』, 2005; 국방부, 『21세기를 지향하는 한국의 국방』, 1995, p. 94.

타격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표적획득, 결심, 타격체계를 발전시킨다. 셋째, 성능개량 및 노후장비 교체 등을 통해서 전력을 질적으로 개선한다. 넷째, 전쟁지속능력을 보장하기 위해서 전투예비탄약을 확보하고 편제장비 보충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다. 해양전력

해양전력은 한반도 주변해역 통제와 해상교통로의 보호능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첫째, 수상전투함의 함형을 발전시키고 협동공전능력을 향상시키며 탑재무기체계를 보강한다. 둘째, 수중작전 및 감시, 타격 능력을 단계적으로 향상시킨다. 셋째, 주요 해상교통로 및 핵심해역에 대한 초계능력을 확충한다. 넷째, 상륙작전 및 기뢰전 능력을 향상시킨다. 끝으로 해상교통로 보호 및 해상감시능력을 증대하기 위한 거점기지 건설을 추진하고 전투지속능력을 향상시킨다.

## 4. 맺 음 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군사선진국들은 21세기 전장환경에 적합한 군사력 건설에 주력하고 있다. 즉, 전장가시화를 위한 C4ISR 전력과 원거리 정밀타격전 수행을 위한 PGM 전력 건설에 주력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과 미국은 2012년 4월까지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에 전환한다고 합의하였다. 한국군이 주도적인 방위역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전장가시화와 원거리 정밀타격체계를 확충해야 한다. 이는 지난 20여 년간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배분 시 우선순위에 밀려 실행되지 못한 전력체계들이다.

21세기 전장환경이 요구하고 있는 또 하나의 요소는 '합동성 강화'이다. 전장에서 가장 효과적인 전력을 투입하여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전력을 투입하는 것이 현대전 승리의 관건이다. 한국군은 그동안 과도할 정도로 지상군 중심의 전력구조를 유지해왔다. 이제는 선진형 첨단 무기장비로 무장된 기술집약형 정예전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국방개혁 2020법안은 단계적인 병력감축을 통하여 재래식 양적 군대를 첨단기술력의 질적 군대로 전환시키고, 방만하고 부실한 현재의 부대조직구조를 과감하게 구조조정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전투형 임무부대 조직구조로 정예화하는 혁신적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국방개혁법이 순조롭게 추진되어 21세기 전장환경에서 효과적으로 국가를 방위할 수 있는 국방력체제를 구축하는데 초석이 되도록 범국가적인 노력의 집중이 요구된다.

(원고투고일 : 2008. 9. 2, 심사수정일 : 2008. 10. 9, 게재확정일 : 2008. 11. 17)

주제어 : 한국군, 창군, 한국전쟁, 현대전, 미래전, 작전통제권, 국방개혁, 유엔 평화유지작전, 효과기반작전, 군사력 건설방향

<ABSTRACT>

## The 60th Anniversary of the ROK Armed Forces: What should be done for Next 60 Years?

Hong, Sung-pyo

This year is the 60th anniversary of the establishment of the Republic of Korea(ROK) Armed Forces. Soon after the establishment, the ROK Armed Forces should fiercely fight against the North Korean People's Army(NKPA) communist invaders from the north. After the Korean War, the ROK Armed Forces played a pivotal role for recovering construction of a ruined nation.

Nowadays the ROK Armed Forces is ranked as top the 5th in military personnel, the 10th in defense budget, the 10th in weapon modernization in the world. In this context, let me examine what should be done for next 60 years to come for national defense?

Advanced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US) are exerting national efforts for modernizing its military for preparing future warfare. They are concentrating national effort for constructing military systems such as C4ISR and PGMs for visualization of battle-space and enhancing precisional engagement capabilities.

The ROK and the US agreed to transfer operational control(OPCON) to the ROK by April 2012. Many specialists on defense emphasized that the ROK Armed Forces should primarily acquire the advanced ISR systems including AWACS and strategic reconnaissance aircraft before OPCON transfer. It is essential for the ROK to deter war and minimize war damage.

Another important thing for the ROK Armed Forces is to enhance the

joint of Army, Navy and Air Force. Advanced countries are exerting their utmost effort for cost-effective defense system. The ROK is also required the same endeavor for strengthening its defense capability. The ROK Armed Forces should transfer its structure from military personnel-centric defense structure to technology-centric structure.

*Defense Reform Plan 2020* is pursuing the same direction for restructuring the armed forces. It is included reduction of military personnel, enhancement of jointness, transfer of OPCON and command structure. We have to support the *Defense Reform Plan 2020* come true in the near future.

Key Words : The ROK Armed Forces, Establishment of the ROK Armed Forces, the Korean War, Modern Warfare, Future Warfare, Operational Control(OPCON), Defense Reform, UN PKO, Effects-based Operations(EBO), Future Direction for Force-Building